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Emigration

코리안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 한지로 접은 비행기

## *Ricepaper Airplane*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Artistic Director LEE Taeho





민영순

MIN Yong Soon







앨리스 미옥  
*Alice Miok*

2018  
아카이벌 프린트 Archival Print  
46x92cm

작가는 <앨리스 미옥>이아말로 권력 관계와 젠더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좇았던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선구자라고 주장한다. 1903년 하와이 태생으로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앨리스 미옥은 1920년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박헌영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되고, 사진 속의 이 신비롭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역사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박헌영은 남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이후 1955년 김일성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다. 앨리스 미옥은 박헌영 사망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실종되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저고리 스타일은 앨리스 미옥이 살았던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정병준은 저서 『앨리스 현과 그의 나날들』에서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아 앨리스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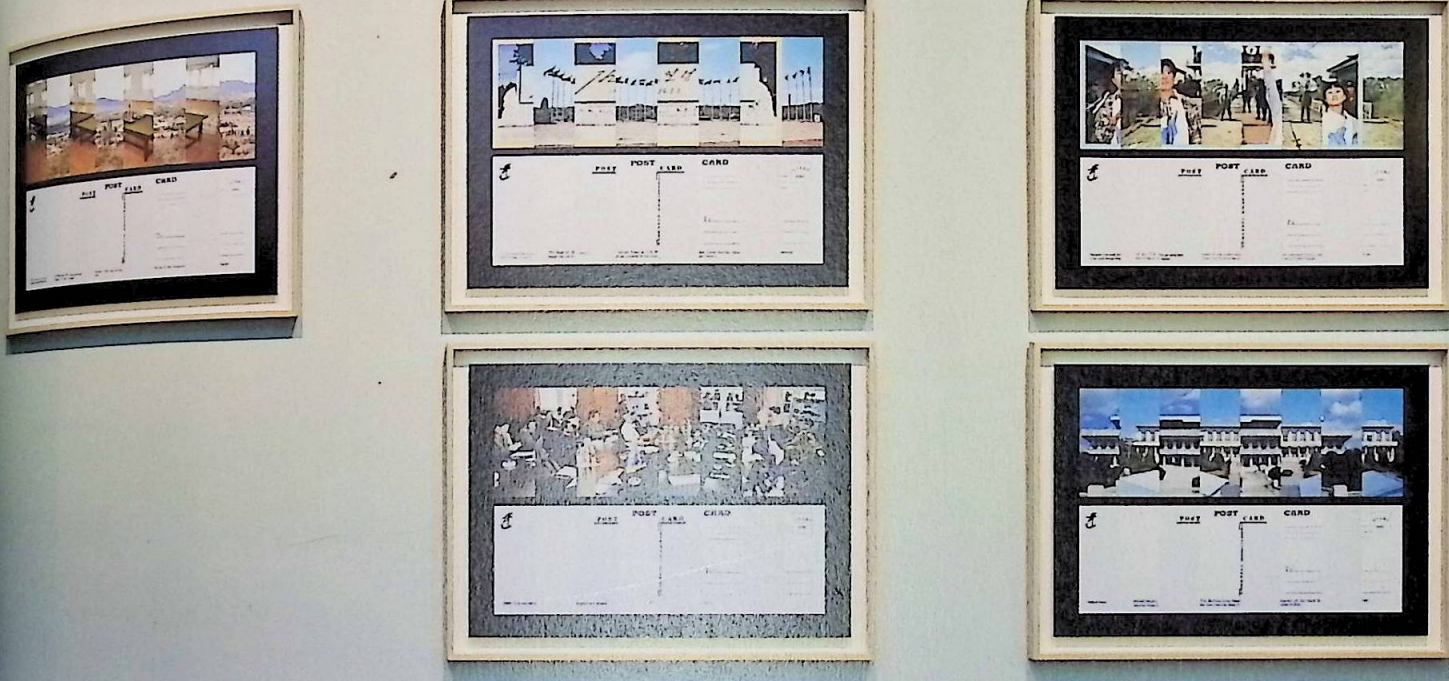


**양쪽의 현재**  
**Both side Now**

2018  
아카이벌 프린트 Archival Print  
61x85cm

<양쪽의 현재>는 작가가 1988년 북한 비무장지대 방문 당시 구입한 엽서와 1995년 남한 판문점에서 구입한 엽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풍경이 담긴 남한 쪽 엽서와 북한 쪽 엽서를 각각 한장씩 고른 후 세로로 길게 자르고 이를 번갈아 붙이는 작업으로, 엽서의 뒷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Using postcards personally purchased in Panmunjom, South Korea in 1995 and at the DMZ in North Korea in 1988, ***Both Sides Now*** brings together both sets of images of the border at the DMZ, alternating each slotted views of the North with the South, with matched back sides.

The artist claim ***Alice Miok***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pioneer who challenged power relations, gender norms and pursued her passion for socialist ideals. Her dynamic, tragic short life, born 1903 in Hawaii, brought historians' attention with the 1920 photograph taken in Shanghai as the mysterious attractive young woman in the same photo with Pak Hon-Yong, who was later purged in 1955 by Kim Il Sung as the competing Communist leader from the South. This cheogori style image shows various significant sections of Alice Miok's life before she disappeared in North Korea around the same time after Pak Hon-Yong's death. Jung Byung-Joon pieced together the scant materials of her life in his biography, *Alice Hyun and Her Days*.



# 작가이력 Artists' Biography

## 갈라 포라스-김 Gala Porras-Kim

갈라 포라스-김(1984, 콜롬비아 보고타 생)은 동시대 다원예술 작가로 로스 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휘트니미술관, LA현대미술관, 해머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작업 다수는 시간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작가는 언어나 역사의 재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을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작가는 2019년 휘트니비엔날레, 2021년 광주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에 참여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LA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의 피바디 고고학·민족학 박물관의 연구자로 멕시코의 고고학적 현장에서 찾은 사물을 연구하였다. 또한, 게티센터 작가 레지던시에서는 '언어와 역사가 예술과 만나는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해 연구하였다.

Gala Porras-Kim (born 1984, Bogota, Colombia) is a contemporary interdisciplinary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Her work has been shown at the Whitney, LACMA, and the Hammer Museum. Much of her work deals with time, and the way the perception of objects changes over time. Gala uses a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at influences the representation of language and history to create art objects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She participated in the 2019 Whitney Biennial and 2021 Guangju and Sao Paulo biennales. Porras-Kim also curated a show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in October 2019. As a scholar at the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at Harvard University, Porras-Kim researched objects from archeological sites in Mexico. Her work as artist-in-residence at the Getty Center investigate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at influence how language and history intersect with art."

##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한국인 입양아 글렌 모리와 그의 아내이자 제작 파트너인 줄리 모리의 영화 프로젝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사회정의영화제에서 최고의 단편다큐 영화상을 수상했고, 샌디에고 아시아인영화제, 보스턴 아시아계미국인 영화제, 뎀보영화제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서울과 뉴욕에서 있었던 12 스크린 영상 설치로 소개하였으며, 2020년에는 오더블 오리지널 스페에서도 상영되었다. 글렌 부부의 작업은 NPR 방송사의 모닝에디션과 조선일보,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SBS 뉴스, JTBC 뉴스, 포브스, 사이콜로지 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다. 글렌 모리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글렌과 줄리 모리는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며 상업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The Side by Side Project was created by Korean adoptee, Glenn Morey, and his wife and filmmaking partner, Julie Morey. Side by Side was awarded Best Short Doc at the Social Justice Film Festival, and was an Official Selection of the San Diego Asian, Boston Asian American, and Dumbo film festivals. In 2019, it was adapted as a 12-screen video art installation with runs in Seoul and New York City, and in 2020 it was released as an Audible Original. Glenn has been featured on NPR's Morning Edition and All Things Considered, as well as The Chosun Ilbo, Korea Herald, Korea Times, SBS News, JTBC News, Forbes, Psychology Today, and others. He was born in Seoul in 1960 and adopted to the U.S. at the age of 6 months. Glenn and Julie live in Denver, Colorado, and are longtime commercial and documentary filmmakers.



## 김수자 Kimsooja

김수자(1957- )는 1980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갤러리현대(서울)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미국을 주 무대삼아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국가를 오가며 1989년 온갤러리(오사카, 일본), 2000년 ICC(도쿄, 일본), 2001년 MoMA(뉴욕, 미국), 2015년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빌바오, 스페인),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작품 활동을 펼쳤다. 1991년 송은미술대상, 1992년 석남미술상, 2015년 호암 미술상, 2017년 김세중 조각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5년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그의 작품이 3개월 동안 상영되기도 했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되었다.

Kimsooja (b. 1957) received her BFA and MFA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in 1980 and in 1985 respectively. Starting with her solo exhibition at Gallery Hyundai (Seoul, Korea) in 1988, Kim mainly showed her works in the US from 1990s, as well as expanding globally and showing in countries like Japan, Canada, Italy and Germany, etc. Kim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On Gallery (Osaka, Japan) in 1989, ICC (Tokyo, Japan) in 2000, MoMA (New York, US) in 2001, Bilbao Guggenheim (Bilbao, Spain) in 2015,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in 2016. She was the recipient of SongEun Art Award in 1991, Seoknam Art Award in 1992, Hoam Art Award in 2015, and Kim Se-choong Sculpture Award in 2017. Kim's work was presented on the Astrovision sign in Times Square, New York for 3 months in 2015. Kim represented the Korean Pavillion at 2013 Venice Biennale.

## 김희주 KIM Heejoo

김희주는 실험 영화 및 복합 매체 영화감독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이며 에듀케이터로 활동한다. 현재는 실험적 서사 영화 구조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별, 페미니즘, 노인 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 쟁점에 주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희주의 영화와 설치 작품은 세계 곳곳의 여러 영화제와 갤러리에서 소개되었으며, 국제 영화제와 컨퍼런스에서 최고 실험영화상, 최고 프로그램상을 다수 수상했다. 여러 국제 미디어 아트페스티벌, 컨퍼런스, 전시 등에서 디렉터, 큐레이터,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김희주는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Heejoo Kim works as an experimental mixed media filmmaker, new media artist, and educator currently creating projects focusing on social issues, such as microaggressions, feminism, elder abuse, etc. in experimental narrative film structures. Her films and installations have been internationally presented at festivals and galleries and have received awards including Best Experimental Film, and Best of Show at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conferences. She had been a director, a curator, a judge, and an adjudicator for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s, conferences, and shows. Currently she is teaching a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다프네 난 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난 다프네 난 르 세르장은 파리에서 거주하면서 지형학적 경계와 잠재적 내부 분열을 참조하여 분리 또는 분열 개념에 대한 예술적,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작가는 미학 및 예술학 박사로서, 현재 파리 8 대학교의 사진학과 조교수이자 AIAC(Art of Images and Contemporary Art)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저서로 2009년에 출간된 『중추적 이미지 혹은 눈의 해석 (The Pivotal-Image or an Eye's account)』이 있다. 르 세르장의 작업은 세계 여러 갤러리와 예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작가의 이론적 연구 또한 공저를 포함한 여러 저서를 통해 출간되고 있다.

Born in 1975 in Seoul (South Korea), Daphné Nan Le Sergent lives in Paris and carries out artistic and theoretical research into the notions of separation or schize, with reference both to geopolitical boundaries and potential internal disjunction. She has Ph.D. in Aesthetic, Sciences and Technology of Arts. She is assistant professor at Paris 8 University, Photography Department and a member of AIAC research laboratory (Art of Images and Contemporary Art). In 2009, she published The Pivotal-Image or an Eye's account. Since then, her artwork has been regularly exhibited in galleries and institutions and her theoretical researches have been published in collective books.



## 민영순 MIN Yong Soon

수원 인근 부곡에서 한국 전쟁이 종전된 해에 태어난 민영순은 자신을 냉전 시대의 아이라고 부른다. 작가는 80년대 뉴욕에서의 활동을 통해 식민주의 역사, 디아스포라 역사 안의 여러 정체성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정립하고 아시아 태평양/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진다. UC 버클리에서 석사 학위를, 휘트니미술관의 인디펜던트 리서치 프로그램을 이수한 민영순은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뉴장르 시각 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구겐하임재단 벨라지오 레지던시, 익명은 여성이었다.(Anonymous Was a Woman)상, 한국재단 상, 로스앤젤레스 문화부의 COLA 예술가 펠로우십, 폴브라이트 시니어 연구 지원 등을 받았다. 민영순은 UC 엘바인의 명예 교수로, 아시아계 미국인 예술 동맹, CAA 국립 디렉터 보드, 한국계 미국인 박물관의 자문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ICA LA의 예술가 자문 위원, GYOPO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ong Soon Min considers herself a cold war baby born in Bugok near Suwon the year the Korean War ended. Min became Asian Pacific/Korean American in New York City during the 80s where she cut her political teeth on the interplay of identities within colonial and diasporic histories. Min receive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Visual Artist Award in New Genre; Guggenheim Foundation Bellagio residency; Anonymous Was a Woman Grant; Korea Foundation Grant; COLA Individual Artist Fellowship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Cultural Affairs Department; and Fulbright Senior Research Grant. Min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Asian American Arts Alliance, national Board of Directors of CAA, and Korean American Museum. She currently serves on Artists Board of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 LA) and the steering committee of GYOPO. She is Professor Emerita at UC Irvine, with MFA from UC Berkeley, followed by a postdoc at Whitney Museum's Independent Study Program.

## 박유아 PARK Yooah

1961년 서울에서 출생한 박유아는 199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뉴욕에서 거주 하며 활동하고 있다. 동양화를 전공한 그는 전공인 수묵을 넘어 세라믹, 메탈, 섬유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조각이나 멀티미디어, 설치,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작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1990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뒤 서울, 도쿄, 뉴욕, 시카고, 모스크바, 베니스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수묵 중심의 서체 작업을 다양한 매체로 확장시켜 온 작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탐구의 주제를 자신의 이야기로 구체화하여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다양한 대상을 초상으로 담은 프로젝트를 지속하며 정체성 탐구를 심화하고 있다.

Born in 1961 in Seoul, Park moved to US in late 1990s.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New York. Park majored in Oriental Painting, but her work has expanded beyond her major medium of ink and wash, to other mediums like ceramics, metals, fibers, etc., and has broadened to encompass multimedia,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Since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New York in 1990, Park has held solo exhibitions in Seoul, Tokyo, New York, Chicago, Moscow, and Venice. Continuing to expand her ink and wash writing-based works to diverse mediums, the artist has been focusing on herself as the subject of exploration since early 2000s, exploring her identity through projects that capture her family and people around her in portraits

## 박이소 BAHC Yiso

박이소는 1981년 홍익대학교 졸업 후 1982년 미국 뉴욕의 프랫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졸업 후에는 뉴욕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지역에서 마이너 인저리(Minor Injury)란 이름의 대안공간을 운영하면서 작업을 이어 갔다. 이 시기는 작가에게 있어 일종의 모색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소 과작을 보이던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한 1995년 이후에는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며 미술계의 시선을 모으기 시작한다. 광주비엔날레 출품(1997년), 대안공간 풀에서 개인전(200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출품(2002년), 베니스비엔날레(2003년) 등 활발히 작업을 하던 중, 2004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Bahc Yiso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in 1981, and received his MFA from the Pratt Institute, New York in 1985. After graduating, Bahc continued to work and founded the alternative space Minor Injury in Greenpoint, Brooklyn, New York. This period in his life in New York was a time of exploration but the artist produced a rather small number of works. Bahc returned to Korea in 1995 and began making a robust body of works, garnering attention in the art world. Bahc showed his work actively, presenting them in exhibitions like Gwangju Biennale (1997), a solo exhibition in Alternative Space Pool (2001), Yokohama Triennale (2002) and Venice Biennale (2003) until he suddenly passed away due to heart attack in 2004.



## 백남준 Nam June Paik

백남준은 1932년 서울시 종로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1952년 도쿄대학교 문과부에 입학해 미술사학 및 미학을 전공하고 전위음악가 '아르놀트 쉐베르크 연구'를 졸업 논문으로 썼다. 1956년 졸업과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나 쉐베르크 이후 현대음악의 실험이 활발하던 다름슈타트로 가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를 만나 교류한다. 1960년 즈음, 다다이즘의 정신을 잇는 '목적 없는 자유, 실험을 위한 실험'을 이어갔고 요셉 보이스 등과 함께 플럭서스 활동에 참여한다. 이즈음 작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악기를 부수는 파격적 행위예술과 머리와 몸에 잉크를 바르고 흰색 천이나 캔버스 위에서 그 채취를 남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점차 전자공학과 TV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63년에는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이란 제목으로 13대의 TV를 사용한 최초의 '비디오아트'를 선보였다. 1964년 이후에는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첼로 연주자이자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의 기획자였던 샬롯 무어맨과 함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브라>, <TV첼로> 등 미디어 테크놀러지와 퍼포먼스가 결합한 파격적인 예술의 실현으로 뉴욕 예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비디오아트를 새로운 설치미술로 변환하여 전시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TV이다>, <TV 붓다> 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뉴욕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의 새로운 예술을 알렸고 1982년 뉴욕 휘트니미술관에서 가진 <백남준 회고전>은 그의 예술 세계를 세계에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

Nam June Paik was born in Jongno-gu, Seoul, in 1932, where he grew up. His family moved to Japan just before Korean War broke out. Paik enrolled in Department of Liberal Arts at Tokyo University in 1952, where he majored in Art History and Aesthetics and graduated with a thesis on Arnold Schoenberg's serialism. Upon graduating in 1956, Paik went to study in Germany, and headed to Darmstadt where proactive experimentation of contemporary music was happening. There, he met John Cage, the most prominent avant garde musician at the time. In 1960s, Paik became involved in Fluxus activities with artists like Joseph Beuys, continuing on with "aimless freedom and experimentation for the sake of experimentation," carrying on the spirit of Dadaism. Around this time, Paik showed unconventional and sensational acts of art like shattering instruments such as the piano and violin, and gave performances where he would put ink on his body and hair and leave traces of himself on white cloth or canvas. Paik gradually began to show interest in electronic engineering and media art using TV. In 1963, he showed the very first "video art" using 13 TVs in the exhibition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V at the Parnass Gallery in Wuppertal, Germany in 1963. Paik worked briefly in Japan and then mainly in US after 1964, where he started working with Charlotte Moorman, a cellist and advocate for avant-garde music. Together, they began to show unprecedented artistic practices combining media technology and performance for which they drew attention of the New York art scene, culminating in works like TV Bra for Living Sculpture and TV-Cello. In 1970s, Paik converted video art into a new form of installation art. Presenting works like Moon is the Oldest TV and TV Buddha, major art institutions not only in New York but around the world began inviting Paik to show his works. Paik's retrospective exhibition held at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in 1982 served as a clear opportunity through which to introduce Paik's works to the world.

## 윤진미 YOON Jin-me

한국 태생의 윤진미는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렌즈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 직접 겪은 경험을 역사와 연결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자신'과 '타자'의 구축에 대한 비평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윤진미의 작업은 고정 관념과 지배적인 담론을 분석하면서 젠더와 성, 문화와 민족, 시민권과 국민성의 문제를 다룬다. 지난 30년 동안 작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초국가주의 맥락 안에서 특정 장소에 뒤섞여 존재하는 지역적(로컬)이면서도 글로벌한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를 보여주었다. 윤진미의 작품은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캐나다를 비롯하여 국제 미술 기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캐나다 현대 사진 예술의 탁월성을 보여준 것으로 인정받으며 2022년 스코샤뱅크 사진상을 수상했다.

Jin-me Yoon is a Korean-born, Vancouver-based artist. Since the early 1990s, her lens-based practice has critically examined the construction of self and other in relation to her own direct and inherited history, as well as within broader geopolitical contexts. Unpacking stereotypical assumptions and dominant discourses, Yoon's work has examined gender and sexuality, culture and ethnicity, citizenship and nationhood. Over the last thirty years, her practice has become a deep investigation into entangled local and global histories existing at specific sites with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ism. Yoon's artwork has been presented in hundreds of solo and group exhibitions. Yoon's work is held in many Canadian and International public collections. In 2022, she won the prestigious Scotiabank Photography Award, celebrating excellence in Canadian contemporary lens-based art.



## 이가경 LEE Kakyoung

한국에서 태어난 이가경은 홍익대학교 판화과에서 학사와 석사, SUNY 퍼체이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브루클린에서 주로 활동한다. 판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설치 작업을 아우르며 활동하는 이가경은 특히 판화와 영상 등 시간 기반 작업을 넘나드는 것에 연구와 작업을 집중한다. 많은 국제전에 참여했으며, 세계 여러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17년 미국아카데미 아츠앤레터 퍼체이스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애니메이션 작품 <불타는 섬(Burning Island)>은 제주도의 4.3 평화기념관 소장품 상설전에서 전시되고 있다.

Born in South Korea, Kakyoung Lee (she/her) is a Brooklyn-based artist with a background in printmaking. Her practice spans printmaking, animation, video, and installation.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ith print and time-based work is central to her research and studio practice. Lee holds her BFA and MFA in printmaking from Hong-Ik University, as well as an MFA from SUNY-Purchase College, NY. She has exhibi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ternationally and her works have been featured and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many museums. She was the 2017 recipi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 Purchase Award. Her animation Burning Island is on view in the permanent collection exhibition at the Jeju 4.3 Memorial in Jeju, South Korea.

## 이영주 LEE Young Joo

이영주는 예일대학교 조각과(2017), 프랑크푸르트 스테델슐레의 영화과(2013)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복합 매체를 사용하는 작가로 현재 메사추세츠의 캠브리지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거주하고 활동한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예술, 영화, 시각 연구 학부에서 애니메이션과 몰입적 매체 예술(Immersive Media Art)을 가르치는 객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의 매체 연구소에서 켈리지 펠로우(2018-20)를 지냈다. 이외 영화와 디지털 매체 풀브라이트 장학금(2015-18), DAAD 장학금(2010-12) 등을 받았으며, 작품은 국내 및 해외 여러 기관과 영화제 등에서 소개되고 있다.

Young Joo Lee is a multimedia artist from South Korea,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Cambridge, MA and Los Angeles. Young holds an MFA in Sculpture at Yale University (2017) and an MFA in Film at the Academy of Fine Arts Städelschule Frankfurt (2013). She currently is a Visiting Lecturer in Animation and Immersive Media Art at the Department of Art, Film and Visual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She was a College Fellow in Media Practice at Harvard University (2018-20), a Fulbright Scholar in Film & Digital Media (2015-18) and a recipient of DAAD artist scholarship (2010-12). Her work has been exhibit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film/video festivals.

## 이현희 LEE Hyun-Hee

이현희는 한국계 호주 작가로 한국의 전통 예술과 서구 예술을 오가며 작업한다. 작가는 한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아시아계 디아스포라의 일부로,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을 경험해왔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감정은 호주로 이주하기 전 그녀의 삶을 형성했던 문화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게 했다. 작품을 통해 이현희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영적이고 문화적인 연결을 잇고자 하며, 이는 그가 작업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현희는 호주 국립미술학교에서 학사학위(우등)를, 2015년 뉴사우스웨일스미술대학교에서 미술 석사(연구)학위를 취득하였다.

Hyun-Hee Lee is a Korean-Australian artist whose work traverses the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art practices. She is part of the Asian diaspora, coming to Australia from Korea she experienced feelings of cultural and emotional displacement. These commonly encountered feelings encourage her to investigate ways to connect to the culture that shaped her life before migrating to Australia. Through her art she aims to establish a spiritual and cultural connection with her country of birth, this has been the driving force that has sustained and developed her art practice. She has a Bachelor of Fine Art (Honours) from the National Art School and completed a Master of Fine Arts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rt and Design in 2015.



##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제인 진 카이젠(1980, 제주 생, 코펜하겐 거주)은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며 왕립덴마크예술학교의 미디어아트 학부의 교수이다. 영상 설치, 서사 실험 영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텍스트 등의 매체를 아우르는 카이젠의 예술 활동은 여러 커뮤니티에 대한 폭넓은 다매체적 연구와 참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작가는 또한 시각적으로 강력하며, 다층적이고, 수행적이며, 시적인 동시에 다성적인 페미니즘 작업을 진행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기억, 이주, 경계, 번역과 같은 주제를 통해 카이젠은 직접 경험한 것과 체화한 지식이 거대한 정치적 역사와 교차되는 지점을 활성화한다. 카이젠의 작업은 재현, 저항, 화해의 수단들을 교섭하고 매개하여 대안적인 계보가 형성되고 집단의 출현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낸다.

Jane Jin Kaisen (born 1980 in Jeju Island, lives in Copenhagen) is a visual artist, filmmaker, and Professor of the School of Media Arts,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panning the mediums of video installation, narrative experimental film, photographic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text, Kaisen's artistic practice is informed by extens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ngagement with diverse communities. She is known for her visually striking, multilayered, performative, poetic, and multi-voiced feminist works through which past and present are brought into relation. Engaging topics such as memory, migration, borders, and translation, she activates the field where lived experience and embodied knowledge intersect with larger political histories. Her works negotiate and mediate the means of representation, resistance, and reconciliation, thus forming alternative genealogies and sites of collective emergence.

## 최성호 CHOI Sung Ho

서울에서 태어난 최성호는 1981년부터 뉴욕시와 뉴저지의 베겐 카운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는 1980년 홍익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1984년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업은 지난 40년간 북미, 중미 지역과 아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소개되었다. 최성호는 두 문화를 오가는 (bi-cultural) 작가로, 다수 안에 존재하는 소수자의 복잡성과 대조적 측면을 즉 '타자'가 되는 경험을 묘사해 왔다. 창작자로서의 노력 외에, 최성호는 1988년부터 뉴욕시와 베겐 카운티의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예술 교육가이자 데이터 수집가로 쉬지 않고 활동해왔다. 1990년에는 서로한국문화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으며 1993년 퀸즈미술관에서 있었던 순회전 <태평양 건너: 동시대 한국 미술과 한국계 미국 미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기획, 조직하였다.

Born in Seoul, Korea, Sung Ho Choi has lived and worked in New York City and Bergen County of New Jersey since 1981. He completed BFA at Hong IK University in Seoul in 1980 and received MFA from Pratt Institute, New York in 1984. Over 40 years, His works have been shown at the many exhibitions in the northern and central America and Asia. As a bi-cultural artists, Choi has depicted the experience of being the "other," of contrasts and complexities of a minority existing within a majority. Beyond his creative endeavor, he has restlessly worked as a cultural activist, an art educator and data collector in New York City and the various communities of Bergen County since 1988. He co-founded Seoro Korean Cultural Network in 1990 and organized many cultural events including the traveling exhibition, Across the Pacific: Contemporary Korean and Korean American Art at Queens Museum of Art, NY in 1993.

## 케이트 허스 리 kate-hers RHEE

한국에서 태어난 사회 활동 예술가 케이트-허스 리(이미래/李未來)의 인종은 초월한 삶의 경험은 그가 미국, 한국, 독일 등 여러 도시에서 작업하도록 이끌었다. 각 국가와 도시에서 작가는 외국어, 코드 전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배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작업에 반영하였다. 작가는 초국가적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적 개입, 참여적 퍼포먼스, 드로잉, 설치 및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한 총체예술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자전적 서사를 풀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2022년 재미한국예술재단상(KAFA)을 수상하였고, 2022년 가을에는 아시아 미술관(Museum für Asiatische Kunst)의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의 풀롭슨갤러리(2022),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2023), 베를린 훔볼트포럼의 아시아미술관(2024)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South Korean born social practice artist (이미래/李未來) kate-hers RHEE's transracial life experiences led her to 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Germany, where learning foreign languages, code-switching, and cultural traditions and customs continuously inform her artwork. Through the lens of transnational feminism, RHEE creates complex Gesamtkunstwerke (total-works-of-art) that tell autoethnographical narratives, incorporating social intervention, participatory performance, drawings, installation and new technologies. As the 2022 Awardee of the Korean Arts Foundation of America (KAFA) and Fall 2022 Artist-in-Residence at the Museum für Asiatische Kunst, the artist is preparing for several solo exhibitions, including at the Paul Robeson Galleries at Rutgers University, Newark, NJ (2022), the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2023), and the Museum für Asiatische Kunst, Humboldt Forum, Berlin (2024).



## 하전남 HA Jhonnam

하전남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3세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오게' 되었다.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안동 한지 공방을 방문한 후 할아버지가 사셨던 한국의 본적지(경북 의성군)를 찾아갔다. 그 장소에 감격해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날이 증조할아버지 제사날이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운명적인 생각에 본적지와 가까운 안동 한지를 고향의 한지로 삼게되었다. 현재는 한국의 안동한지, 원주한지와 일본의 고향(omachi)에서 만든 "마쯔사키화지"를 결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주요전시로는 바깥미술회(2019,2020,2021), 2021 Sado Island Galaxy Art Festival(일본), Shinano Primitive Sense Art Festival(2015-2022 일본), ART DMZ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예술가들(2019,2020,2022), 경남도립미술관특별 기획 Diaspora 世紀를 넘어(2017), 자이니치 3.0(2013광주), 우리 또 다른 우리 (2006 국민대학교미술관), 아름전—재일KOREAN미술전(1999,2002일본), Neo-Vessole Areum04-05(2004-2005교토-서울-뉴욕) 등이 있다.

Ha Jhonnam was born in Japan as a third-generation Korean-Japanese. She was then 'given away in marriage to her husband's home' in Korea in 2017. In June 2018, after visiting a Hanji studio in Andong through an acquaintance, she visited her grandfather's domicile of origin in Euisung-gun, Gyeongbuk. Deeply moved by the place, Ha called her parents in Japan, and found out that day was the day when the ancestral rite commemorating the death of her great-grandfather was to be held. Convinced that her great-grandfather led her there, the artist felt that it was a fateful encounter, and began to consider Hanji paper from Andong, which is close to the domicile of origin, as her medium from home. Currently, Ha's work combines Andong Hanji, Wonju Hanji, and Matsusaki paper made in Omachi. Ha's major exhibitions include Baggat Art (2019,2020,2021), 2021 Sado Island Galaxy Art Festival (Japan), Shinano Primitive Sense Art Festival (2015-2022, Japan), ART DMZ Artists Opening up Peace and Unification (2019, 2020, 2022), Gyeongnam Art Museum Special Exhibition Diaspora, Beyond the Century (2017), Zainichi 3.0 (2013 Gwangju), Us, Another Us (2006 Kookmin University Museum), Areum—Korean Japanes Art (1999,2002 Japan), and Neo-Vessole Areum04-05 (2004-2005 Kyoto-Seoul-New York), etc.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Incheon Art Platform in Commemo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코리아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한지로 접은 비행기  
 Ricepaper Airplane

전시예술감독 이태호 Artist Director LEE Tae-ho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 갈라 포라스-킴 Gala Porras-Kim  
 글렌 모리, 줄리 모리 Glenn Morey, Julie Morey  
 김수자 Kimsooja  
 김희주 KIM Heejoo  
 다펜네 난르 세르장 Daphné Nan Le Sergent  
 민영순 MIN Yong Soon  
 박유아 PARK Yooah  
 박이소 BAHG Yiso  
 백남준 Nam June Paik  
 윤진미 YOON Jin-me  
 이가경 LEE Kakyoung  
 이영주 LEE Young Joo  
 이원희 LEE Hyun-Hee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최성호 CHOI Sung Ho  
 케이트 허스 리 Kate-hers RHEE  
 하진남 HA Jhonnam

오프닝 퍼포먼스 Opening Performance

하진남 HA Jhonnam  
 <일본에서 태어난 나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Cut My Hair Born in Japan  
 2022.09.30(금), 16:00, 전시장 1 (Gallery 1)

북 콘서트 Book Concert

<A Ricepaper Airplane>  
 하와이 이민 3세 영문학자 Gary Pak의 소설  
 A novel by Gary Pak, a third-generation  
 Korean-American in Hawaii and scholar  
 of English literature  
 2022.10.08(토), 15:00, 공연장 (Theatre)

작가와의 대화 Artist Talk

최성호 작가 외 CHOI Sung Ho and others  
 2022.10.22(토), 15:00, 전시장 1 (Gallery 1)

www.inartplatform.kr

2022.09.30<sup>FRI</sup> - 11.27<sup>SUN</sup>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중앙광장 IAP Gallery 1, IAP Square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 Open 11:00 - 18:00

